

제 5차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1.06(월)-01.11(토)
2025

하나님께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웨이코 주님의교회
THE LORD'S CHURCH OF MACAO

제 5차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1.06(월)-01.11(토)
2025

- 1/6(월) 하나님께서 부르시다.(출 3:1-5)
- 1/7(화) 장애물은 없다.(마 19:13-15)
- 1/8(수) 핑계는 내게 있다.(눅 14:15-20)
- 1/9(목) 타락한 시대에도(창 18:22-33)
- 1/10(금) 주님께 나감을 전수하라.(삼상 1:20-28)
- 1/11(토) 주께로 나가는 공동체는 힘이 있다.(눅 5:17-26)



웨이코 주님의교회
THE LORD'S CHURCH OF WACO

1/6/25(월)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출 3:1-5)

새찬송가 446 장 주 음성 외에는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국의 campus worship 팀의 찬양 '예수 닮기를' 의 가사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원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체 확인하기

먼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삶의 계획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개인의 미래와 커리어를 위해, 또는 가정과 사업 등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의 주체는 종종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 그것을 이루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세의 숨긴 과거

모세는 숨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관리를 살해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양 떼에 있지만, 사실 양 떼는 그의 최소한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삶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형태와 신념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먹고 사는 방법과 지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강할수록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막고, 지나

친 자기 보호의 말과 행동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해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세의 변화와 특별한 경험

모세의 가치관이 변하는 시점은 그가 특별한 일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보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모세는 불꽃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4 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기이한 경험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던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



요한복음 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각자 계획한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죄를 40년간 숨기고 살아가던 인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대일로 만나고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죄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다 아시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아세요? 저의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 건가요? 혹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고도 오셨나요? 제가 숨기는 것 다 아시나요?"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7/2025(화) 장애물은 없다.(마 19:13-15)

새찬송가 324 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 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목마른 모든 영혼을 영원한 생수 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 장의 대조적 메시지



마태복음 19 장은 매우 흥미로운 대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3 절에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서는 당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1-3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 같은 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며 어린이 같은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이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반응

마태복음 19 장 16 절 이하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뿐만 아니라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반듯한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린이들과 그의 부모, 그리고 부자 청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며 "부자이고 반듯한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할까요?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께 안수 받기 원하는 부모들일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부자 청년일까요? 대부분은 부자 청년이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부를 가난한 이웃과 나눌 수 있냐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시고 청년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와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본적 사고가 아닌 천국의 사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재정적 유익이나 이익 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나눔에는 사람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대접받는 하나님 나라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가 인정받는 교회라면 우리 중에 누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이 동일한 가치관이 라면, 천국과 세상이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교회가 천국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이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방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머리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결단

주님,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 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나아갑시다.

1/8/2025(수) 핑계는 내게 있다.(눅 14:15-20)

새찬송가 273 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유

누가복음 14 장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 ‘값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비유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17 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다 준비가 되었으니 수고로움이 필요 없는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뭐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의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차려준 식사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은 잔치에 참석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쁨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청받은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밭을 샀다, 소 다섯 겨리(10 마리)를 샀다, 장가를 갔다’ 등으로 모두 핑계를 댁니다. 이들은 잔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보다 자신의 스케줄이 먼저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현대인들의 분주함과 공허함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 분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바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이유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늘 허기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을 뽐내도 허무하고, 더 나은 것을 누려도 공허할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발

과 소를 사듯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육적인 쾌락도 즐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잔치의 큰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곧 부족한 것이 없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족함 없이 준비된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배고픔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더 돋보이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인정하고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의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일상과 천국 잔치의 거절

밭을 사고, 소 다섯 겨리를 사고, 장가를 가는 모든 것은 중요한 일상입니다.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하거나 사업체를 새로 오픈하는 것, 결혼 등 모두 중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핑계는 천국 잔치의 초대 받았음에도 거절하는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핑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2025 One more step!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

핑계를 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알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었고,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핑계는 한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우리의 응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초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핑계가 무엇입니까? 시간, 건강, 자녀, 자존심, 세상 유혹?

주께서 초청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핑계 없이 반응하는 이들이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2025(목) 타락한 시대에도(창세기 18:22-33)
새 찬송가 259.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2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최악이 심히 무거우니 23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4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5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6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7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8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주께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개인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부르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

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다가오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창세기 18 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 장에서는 롯의 가정에서 대접하고 있는 주의 사자를 겁탈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이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소연하지만, 소돔은 더 심해집니다. 죄악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걸잡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지역을 위한 기도

사실 도시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보십시오. 작은 불로 시작한 산불들은 시속 100 마일의 바람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을 태워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불이 잡히지 않고, 사람들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큰 바람 앞에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시를 다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죄가 한 번 들어오면 영적 분위기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유희는 너무나 강합니다. 달라스 코마트 근처 헤리하인즈는 타락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살인 사고부터 성적인 죄가 가득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조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달라스시에서 H-Mart 를 크게 짓고 있는 이유 일 수 있습니다. 도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끈질기게 사람들과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의 간구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의 멸망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복의 통로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패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자신이 돌봐야 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였습니다.

집요한 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도시를 살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유혹과 죄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도시는 커질수록 세속화되고, 재미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유혹과 죄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도시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이 세대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한 시대입니다. 웨이코가 도시로 발전한다면 유혹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각종 죄의 모습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될수록 목이 곧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의 유혹의 굴복하고 있습니다 .

의인의 중요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도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



시다. 웨이코에 있는 한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웨이코의 사업체들이 주 안에서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웨이코 베일러의 교수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공물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10/2025(금) 주님께 나감을 전수하라 (사무엘상 1:20-28)
새찬송가 420 장 너 성결키 위해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젓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젓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젓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24 젓을 떼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축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임신 문제로 인해 깊은 열등감을 느끼며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



올때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통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1-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한나의 삶의 문제와 기도 응답에서만 끝났다면,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전수하는 한나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것을 사무엘이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가 되고, 한나의 예배는 사무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7-28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들을 품에 안고 금지옥염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도 예배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과 은혜의 부스러기정도 얻고 살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은 한나의 기도과 믿음을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하라

한나의 기도과 믿음을 전수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의 역할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을 최선으로 섬겨야 합니다. 밥도 해줄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학생들 중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의 열매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칭찬

디모데후서 1: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의 시작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와 가정도 또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어서 기도와 믿음을 전수하는 훈련 기지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에 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2025년도에는 가정 교회 등록, 5명 일대일 영육, 5명 세례 등의 영적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1/2025 (토) 주께로 나가는 공동체는 힘이 있다 (눅 5:17-26)
새찬송가 91 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2025 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

기독교는 두 가지 영성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영성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개인이 예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공동체를 이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내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의 승천 후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누구 하나가 상처받고 죽어도 갈등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이들은 경쟁과 싸움에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돌보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공동체 영성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대표적인 공동체 영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정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가

르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제법 진지합니다. 긴장감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증상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병상째 데리고 왔으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4명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을 그려보면 4명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수 있도록 함께 돕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 보냅니다.

협력의 힘

이러한 과정이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절로 묘사되었지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갈 때부터 병자를 지붕으로 올리는 일, 지붕을 뚫는 일, 내리는 일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상에 있는 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살리고자 협력합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반대의 그룹

그러나 그와 반대의 그룹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선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가 신성모독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즉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아직 살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위치 점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에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침상 위에 있는 병자입니까?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혹 여러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의 짐을 대신 짊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합심의 역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합심함은 한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 결과 병도 낫고 구원도 얻게 됩니다. 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사건



2025 One more step!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은 이번 캘리포니아 화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괜찮으니 비판하거나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힘

이렇게 주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2025 년에 대한 기대

2025 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짐을 져주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의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2025 년 주님의 공동체에 주 안에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